

당권주자 3인이 밝힌 호남공약

광주형 일자리 시대적 과제
당정청 나서 성공시키겠다

■ 송영길 후보

광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최일선에 서겠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를 넘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당·정·청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영암권을 아우르는 전남 서남권에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한전공대(KEPCO TECH)’의 성공적인 설립을 통해 나주 에너지밸리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H라인의 시발점이 목포다. 목포를 환황해경제벨트 그리고 남방 경제를 아우르는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 군 공항도 이른 시간내에 이전되도록 하겠다. 이전 부지에는 전국의 모델이 되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전남 에너지 메카로 육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와 함께 당 대표가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 또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2최고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이다. 공정과 정의로 대변되는 호남 정신이 곧 시대 정신이다. 호남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왔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차디찬 감옥 생활을 견뎌다. 사법고시에 합격, 인권변호사로 역량을 쌓았다.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 활동을, 인천시장을 지내며 종합 행정 능력을 쌓았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하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저에게 당 대표의 기호가 주어진다면 호남의 발전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서 김대중 대통령이 못 다 이뤘던 한반도 평화시대, 분단의 벽을 뚫는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기호순)는 호남을 발전시킬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광주일보의 요청

한전공대 균형발전 가능자
3대 명문 공대로 키우겠다

■ 김진표 후보

우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광주시, 현대자동차 노사와 적극 협력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혁신성장모델은 한국경제의 활력이 걸린 프로젝트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연계된 예산은 100% 예산안에 반영하겠다

또한, 나주의 한전 공대를 충청권의 카이스트와 영남권의 포항공대 같은 명문 공과대학으로 키워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에너지밸리 성공적인 조성도 우수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당 차원서 적극 나서겠다

아울러,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국립심혈관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압법 및 예산지원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립심혈관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연계한 첨단의료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목포, 영암, 해남 지역 등에 추경 조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해당 지역 근로자와 실업자의 생계 안정은 물론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추가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당 차원에서 나서겠다. 당 대표에 당선되면 당내에 ‘호남 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지역공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

IMF 외환위기 시절,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되면 ‘호남경제 살리기’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5·18 민주화 운동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시·도민 뜻따라 상향식 경선
광주·전남 전략공천 없앨 것

■ 이해찬 후보

지역민께 3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 광주·전남에서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 당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는 정무적 판단을 뿌리 뽑겠다. 정책과 전문성, 지역평가를 기준으로 상향식 경선을 하겠다. 오직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 광주는 고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다. 1인당 소득 역시 전국대비 70% 수준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속도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일의 진척이 늦다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차례 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대한민국 일자리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지원하겠다.



본궤도 오른 나주 혁신도시
일자리창출로 연결 시킬 것

셋째, 전남을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 과거 총리 시절, 한전 본사를 나주 혁신도시로 결정했다. 혁신도시는 이제 궤도에 올랐다. 문제는 일자리다.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광주의 자동차산업을 결합시키면 전남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메카가 될 것이다. 한전 공대도 빨리 설립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린다. 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과 천혜의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를 성공시켜 전남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둘이켜보면, 저의 인생은 광주와 참 인연이 깊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이 되어 2년 반을 감옥살이를 하였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다.

지금도 제 지갑에는 항상 광주민주유공자증이 함께 하고 있다. 1988년 국회의원 첫 발을 뒀을 때 처음 한 청문회가 바로 ‘광주 청문회’였다.

민주당과 한 몸이 된 지 30년이다.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총리의 중책을 맡았다. 이제 30년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리 시절 1년이면 1000 건의 국정 과제를 해결했다.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고향인 광주·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24%·송영길 21%·김진표 20% ‘혼전’

호남에서는 송 압도적 1위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전이 여전히 혼전 상태인 가운데 호남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결정된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

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4.1%가 이해찬 후보를 선택했다. 호남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전주보다 0.9%p 오른 21.1%, 김진표 후보는 0.6%p 상승한 20.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38.3%의 지지율로 1위를, 송영길 후보는 29.3%를 차지해 한 자릿수(9%p) 내로 격차로 좁히며 2위로 올라섰다. 김진표 후보는 15.8%를 차지해 3위였다.

지역별로 호남에서는 송 후보가 39.4%의 지지율을 기록, 뒤를 이은 이 후보

(27.2%)를 12.2%p자로 제쳤다.

이 후보는 대전·세종·충청(37.4%)과 서울(26.6%)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송 후보는 호남 외에 부산·울산·경남(22.9%)에서, 김 후보는 대구·경북(2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0%+휴대전화 50%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했다. 표본수는 1005명(총 통화시도 3만4899명, 응답률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송영길 “추미애 대표 중립 말하며 특정후보 지지”

“이종걸 의원도 이해찬 지지 호소…공정 선거 심각한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15일 “추미애 의원께서 당대표인데도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같은 당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대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이 나중에 그런 증거를 확보해

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종걸 의원은 지금도 어디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해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판세에 대해 “잘되고 있고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대의원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후보에 대해 “지금 낯이 와서 노래를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옛날 스타를 존중하지만, 지금 전성기인 BTS와 비교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의 전성기는 송영길”이라고도 했다.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사드 배치 찬성하고 전술핵 배치까지도 찬성했던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과 색깔 차이가 불분명해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도안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